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 115호 【루게 제 25258호】 주제 105 (2016)년 4월 24일 (일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에서 또다시 대성공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시험발사를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이 땅위에 전설적인 만리마산화를 창조시키며 온 나라를 하나의 불도가니로 부글부글 끓게 하고 있는 총정의 70일전투철야진군의 결승선을 향해 폭풍노도치고있는 총진군대오의 발걸음에 필승의 신념과 활력을 더해주는 가슴후련하고 동패한 또 하나의 승전소식이 격동의 이 시대를 더욱 뜨겁게 고무하고있다.

당의 권위와 조국의 존엄을 결코 결사전에 나서 불보다 뜨거운 심장으로 70일전투의 순간순간을 이어가고있는 우리의 국방과학자, 기술자들은 피라는 사색과 탐구, 헌신과 열정으로 주체조선의 핵공격능력을 비상히 강화해나가는 길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탄도탄수중시험발사의 눈부신 성공을 또다시 이룩해냈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를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리만견 동지, 리병철 동지를 비롯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군수공업부 책임일군들과 국방과학연구소의 일군들이 맞이하였다.

모든 국사를 뒤로 미루시고 백두대지의



기상인양 출전하는 탄도탄의 비행운을 오래도록 바라보시며 기쁨을 금치 못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당중앙의 전략적기도에 맞게 주체조선의 강력한 핵공격의 또 다른 수단을 가지게 되었다고 대단히 만족하시면서 전략잠수함에서의 탄도탄수중시험발사기술을 보다 높은 수준에서 훌륭히 완성한 국방과학부인과 군수공장의 일군들, 과학자, 기술자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이번 시험발사의 대성공으로 하여 우리 해군의 수중작전능력이 비상히 강화되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이제는 남조선피괴들과 미제의 위풍수에 아무때나 마음먹대로 멸적의 비수를 꽃을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영웅청년들을 만나보고 돌아오는 길로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를 지도하시기 위하여 바람세찬 바다가 발사장에 달려오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맞이한 일군들과 국방과학자, 기술자들은 탄도탄개발의 나날 자기들과 함께 피땀을 내대고 생사고락을 같이 하시며 창조적지혜와 힘을 주시고 열정을 쟁그리 바쳐오신 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고마움에 솟구치는 격정을 누르지 못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김시소에서

수중발사계획을 청취하시고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를 진행할데 대한 명령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발사명령이 하달된 즉시 잠수함에는 전투경보가 울리고 함은 최대발사심도까지 신속히 침하하여 심멸의 탄도탄을 쏘아올렸다.

잠수함에서 솟구친 탄도탄은 거대한 불꽃기를 토하며 창공높이 날아올랐다.

최대발사심도에서의 탄도탄발사체제안정성과 새로 개발한 대출력고체 발동기를 리용한 탄도탄의 수직비행

체제에서의 비행동력학적특성, 계단열 분리의 민음성, 설정된 고도에서 전투부해기류장치의 동작정확성을 검증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된 이번 시험발사를 통하여 우리 식 수중발사체제의 민음성이 완전히 확증, 공고화되었으며 모든 기술적지표들이 주체적인 수중공격작전실현을 위한 요구조건을 충분히 만족시켰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그 어떤 시련과 난관이 앞을 막아서도 굴함없이 높고 나아가는 주체조선의 불패의

역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앞두고 국방과학부에서 이룩한 이 경이적인 성과는 과학기술로 당중앙을 결사옹위하고 조국의 존엄을 빛내이려는 열렬한 충정과 고결한 당적양심을 지니고 나라의 국방력강화를 위하여 온갖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고있는 국방과학자, 기술자들이 위대한 수령님들께와 어머니당에 드리는 또 하나의 고귀한 로력적선물로 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2 번 으 로 계 속

